

## 새로운 출발, 신생 전시공간 17

올 하반기에도 하이트문화재단의 하이트컬렉션을 비롯해 송은문화재단에서 아트스페이스를 새로 신축개관하는 등 기업에서 마련한 전시공간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. 지난 5월 신생전시공간을 소개한 바 있는 《월간미술》은 그 두 번째로 이후 서울지역에 개관한 갤러리와 더불어 비영리 전시공간과 복합문화공간 17곳을 소개한다. 기존의 건물을 개조해 개성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시장을 만나보자.

### 1 하이트컬렉션

하이트 문화재단은 그간 (주)하이트맥주가 수집하고 소장해 온 작품을 공개하는 전시공간 하이트컬렉션을 사옥 내에 마련했다. 미술 감상의 장을 확대하고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9개월간의 내부 공사를 거쳐 지난 10월 개관한 이 공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전시관을 갖췄다. 하이트컬렉션 관계자는 사옥 내 전시공간은 고객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며 앞으로 소장품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전시를 활발히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. 하이트컬렉션은 첫 기획전시로 권진규의 〈탈주〉와 상설 설치작품인 서도호의 〈인과 Cause & Effect〉를 선보인다.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-12 B1~2F (02) 3219-0271

# BRAND NEW

# SPACES 17